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

李丞宰

이 글은 符號口訣의 표기에 이용된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를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符號는 기존의 문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호 중에서 符標에 속하는 것은 현대어의 文章符號와 같은 성격을 갖고 點吐에 속하는 것은 表音文字의 속성을 갖는다. 한편 符號字의 字形과 製作 原理는 訓民正音의 그것과 거의 같다. 符標의 字形은 주로 訓民正音의 初聲字에 일치하고 點吐의 字形은 中聲字에 일치한다. 훈민정음의 中聲字 制字 原理는 點吐의 製作 原理와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점을 들어 訓民正音의 符號字 起源說을 재기해 보았다. 이 부호자 기원설은 우리의 文字 傳統에서 訓民正音의 起源을 찾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결국 符號字는 特異한 類型의 表音文字에 속한다는 점과 訓民正音의 起源이 된다는 점에서 그 文字論的 意義가 아주 크다.

핵심어: 符號, 口訣, 文字, 訓民正音, 字形, 制字, 起源

1. 序 論

이 글은 符號口訣의 表記에 이용되는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를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필자는 誠庵古書博物館 所藏의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 晉本 ≪華嚴經≫ 卷第20, 周本 ≪華嚴經≫ 卷第22, 延世大 圖書館 所藏의 ≪法華經≫ 卷第1 등의 角筆 符號口訣 자료에 나오는 符號의 字形과 그 位

置를 정리한 적이 있다.[1] ≪유가사지론≫의 자형을 정리하면서 부호의 위치를 漢字의 테두리 즉 '□'의 안쪽과 바깥쪽에 잡아야 함을 논의하였고(李丞宰 2001나) 위의 네 자료에 나오는 符號의 字形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간단하게나마 訓民正音의 符號字 起源說을 제기한 바 있다(李丞宰 2001다).

이 글은 이들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符號의 文字論的 意義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符號口訣의 國語史的 意義는 이미 다각도로 논의된 적이 있다.[2] 그런데도 그 文字論的 意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부호구결의 국어사적 의의가 큰 만큼 그 문자론적 가치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李丞宰(2001가)와 李丞宰(2001다)에서 조금씩 다뤄 보기는 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았으므로 다시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를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符號字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아주 큰 의의를 갖는다. 첫째는 부호자가 문자론적으로 特異한 屬性을 갖는다는 점이다. 우선 부호자를 文字 範疇에 넣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나아가서 문자의 범주에 넣는다면 어떤 종류의 문자로 분류할 것인지를 밝혀야만 한다. 둘째는 符號와 訓民正音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符號의 字形이 訓民正音의 字形과 일치하는 예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一致의 樣相이 아주 體系的이다. 이를 바탕으로 訓民正音의 符號字 起源說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부호자의 문

---

1) 誠庵本은 趙炳舜 館長님의 厚意로 筆者와 南豊鉉, 尹幸舜의 三人이 공동으로 조사하였다. 延大本 ≪法華經≫ 卷第1에 대해서는 尹幸舜과 장경준의 移點本을 상호 대조하여 이용하였음을 밝혀 두 분께 감사드린다. 南豊鉉(2000가)가 14세기경의 자료로 추정한 祇林寺本 ≪法華經≫ 卷第7도 부호구결 자료로서 아주 중요하다. 이 자료는 여타 자료와는 달리 角筆 자료가 아니라 墨筆 자료인데, 이 자료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할 것이다.

2) 李丞宰(2000), 南豊鉉(2000나), 南豊鉉·李丞宰·尹幸舜(2001), 李丞宰(2001가), 李丞宰(2001나), 尹幸舜(2001), 鄭在永(2001), 金永旭(2001), 서민욱(2001)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론적 의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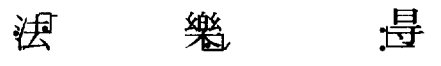
2. 符號字의 文字論的 特性

2.1. 符號字의 屬性

符號口訣의 符號字는 언뜻 보기에 보통의 符號도 아니요 그렇다고 文字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李丞宰 2000)을 띤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文字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부호자 중에서 點吐에 해당하는 것은 言語 形式을 표기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李丞宰 2001가). 따라서 부호자의 문자론적 특성을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부호자 중에는 부호구결을 해독하여 言語 文字化할 때 사라지는 것이 있다. 예컨대 漢字의 테두리, 各種 境界線과 補助線, 句讀線, 合符, 逆讀線, 校正符號 등은 해독 과정이 끝나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들은 해독 방법을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言語 形式과는 無關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의 境界線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 가. 나. 다.



(5:4,10) (5:8,17) (5:11,13)

(1)에 나오는 경계선 [ㄱ], [ㄴ], [ㄴ] 등은 單點 [·]과 單線 [-]이 漢字의 테두리 '□' 안쪽에 오는지 바깥쪽에 오는지를 명시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李丞宰 2001나). 그런데 이들을 문자화하여 해독한 결과를 보면 境界線은 사라지고 單點 [·]이나 單線 [-]만 남게 된다. (1가)의 예를 든

다면 [·]14와 [-]10은[3] 각각 對格助詞 '乙[ㄹ/을]'과 동명사어미 'ᄇᆞ[ㅁ/음]'로 치환되어 남지만 [ㄱ]은 言語 形式이 아니므로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해독 결과 사라지는 部類를 李丞宰(2001가)에서는 '符標'로, 言語 形式으로 置換되어 남게 되는 部類를 '點吐'로 명명한 바 있다.

符標는 언어 형식을 기능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현대어로 말하면 각종 文章符號에 해당한다. 예컨대 句讀線은 현대어의 쉼표 ','나 마침표 '.'에 해당하고 合符는 '-'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표는 현대어의 ',, ., -, ?, !' 등의 文章符號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4]

이에 비해 點吐는 言語 形式을 직접 표기한 것이다. 言語 形式을 표기한 것이므로 당연히 音價를 갖는다. 그런데도 單點 [·]이나 單線 [-]의 音價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다. 이들이 어느 위치에 온 것인지가 결정되어야만 音價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가사지론≫에서는 單點 [·]이 13번 위치에 오면 'ㄱ[ㄴ/은]'으로 읽히지만 17번 위치에 오면 'ㄷ[ㅅ]'으로 읽힌다. 音價가 可變的이라는 점이 바로 符號口訣만의 독특한 特徵이다.

이 可變性을 근거로 하여 點吐를 文字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點吐의 位置가 확정되면 바로 言語 文字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周本 ≪화엄경≫ 권제22의 9장 18-19행에 나오는 문장을 예로 들어 보자.

---

3) [ ] 안에 넣은 것은 부호의 종류를, 그 뒤의 숫자는 부호의 위치를 나타낸다.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는 다음 點圖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참고로 ≪유가사지론≫의 點圖를 옆에 제시하였다.

01	02	03	04	05	夫	02	03	04	尒	
06	07	08	09	10	冖	4,ㅣ	ㄱ	ㅓ	矢	
11	12	13	14	15	人	3,ㅅ	ㄱ	乙		15
16	17	18	19	20	土	七	ㅠ	十		20
21	22	23	24	25	ㅣ	22	ㅈ	下	分	

4) 현대어의 文章符號를 문자의 범주에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문자'의 개념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2) 가. 一切世界[ㆍ]10 兜率天王[ㅅ]17 悉[ㅣ]14 爲於佛[·]15 [·]18 如是[·]09 敷座[:]03
나. 一切世界ㅅ七? 兜率天王ㄱ 悉ㅅ 爲於佛ᄋᆞᆺ ᄉᆞ 如是ᄉᆞ 敷座ㅅᄂᆞㅅ
다. 一切世界ㅅ七? 兜率天王ㄱ 悉ㅅ [於]佛ᄋᆞᆺ 爲ᄉᆞ 是 如ᄉᆞ 敷座ㅅᄂᆞㅅ
라. 一切世界앗? 兜率天王도 다 부텨 삼 이 다 敷座ᄒᆞ아

(2가)의 여러 點吐는 (2나)에서처럼 字吐로 置換되고 語順 調整 과정인 (2다)를 거쳐 (2라)처럼 正音化된다. 즉 모든 點吐는 사실상 普通의 文字로 치환될 수 있다. 아직 정확하게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적지 않지만 이론상으로 點吐를 항상 文字化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符標를 符號의 일종으로 보아 현대어의 文章符號와 같은 부류에 넣는다. 반면에 點吐는 文字의 一種인 것으로 간주하되 그 構造가 보통의 문자와는 달리 特殊한 것으로 본다. 符標와 點吐의 차이는 결국 音價의 有無 차이로 귀결된다(李丞宰 2001가).

2.2. 符號字의 文字 構造

符號字의 文字 構造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漢字와 訓民正音의 文字 構造를 살펴보기로 한다. 漢字는 表意文字의 대표적인 예로서 그 구조는 字形·字音·字義의 三脚 構造로 이루어진다.[5] 이에 비하여 表音文字인 訓民正音은 字形에 바로 字音이 관계를 맺는 구조를 가진다. 이 차이를 표로 그려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3) 漢字의 構造

形 例) 天
/ \ / \
義 音 하ᄂᆞᆯ [tiən]

(4) 訓民正音의 構造

形 例) ㅣ·
| |
音 [a]

5) 漢字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字義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漢字의 訓과 音을 이용하여 문자 생활을 해 왔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3)과 같은 漢字의 構造에서 字形과 字義의 둘만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것을 訓借字라고 하고 字形과 字音만을 이용한 것을 音借字라고 한다. 獻花歌의 '花肹 折叱可'를 예로 들어 借字表記의 構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借字表記의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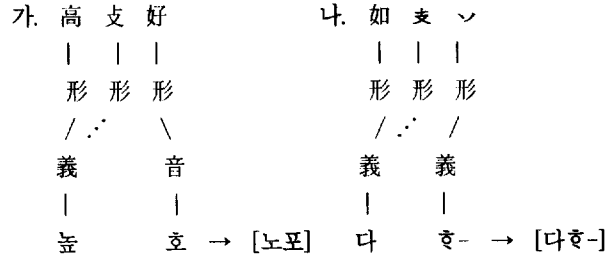
花	肹		折	叱	可	
|	|		|	|	|	
形	形		形	形	形	
/	\		/	\	\	
義	音		義	音	音	
|	|		|	|	|	
곶	흘/을		겄	ㅅ	가/거	→ [고줄 것거]

이러한 기술 방법에 따라 온전한 漢字는 {/ \}로, 訓讀字는 {/}로, 音讀字는 {\}로 그 구조를 표시하기로 한다.[6]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4)의 'ㅣ·'는 {\}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다. 즉 진정한 의미의 표음문자는 字義를 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字形에 바로 字音이 대응한다. 따라서 表音文字의 구조는 {|}라 표시하여 音讀字의 구조 {\}과 일단 구별한다.

그런데 金完鎭(1980)이 설정한 指定文字는 앞에 오는 漢字를 訓으로 읽으라고 指定해 주는 機能만을 가진다. 따라서 자신의 고유한 訓이나 音을 가지지 못한다. 앞에 오는 漢字가 訓讀字임을 지정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정문자 '攴'이나 '攵'를 訓讀字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한 讚耆婆郎歌의 '高攴好'와 釋讀口訣의 '如攵ㅅ-'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높'이나 '다'는 각각 '高'와 '如'에 대응하는 訓이지 '攴'과 '攵'에 대응하는 訓이 아니다.

6) 이 방법에 따르면 이른바 假借字는 音讀字와 마찬가지로 {\}의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6) 指定文字 'ᄉᆞ'와 'ᄼᆞ'의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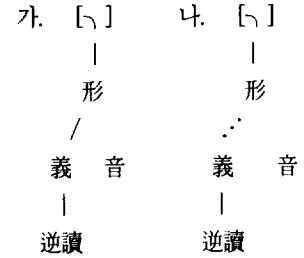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지정문자는 자신의 訓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앞에 오는 한자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위의 표에서처럼 그 관계를 {.·'}로 표시할 수는 있다. 지정문자는 앞에 오는 한자와 간접적으로만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符號字의 構造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앞에서 符號를 符標와 點吐로 나누어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도 이 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符標의 문자론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符標의 일종인 逆讀線의 構造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7) 符標의 構造



逆讀線과 같은 符標는 符號口訣을 文字化할 때에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符標가 音價를 가지지 못함을 뜻한다. 따라서 逆讀線 [ㄱ]을 바로 字形이라고 했을 때 이 字形을 字音에 연결할 수가 없다.

이것은 符標에 속하는 것은 모두 表音性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逆讀線 [ㄱ]의 字形에 字義을 연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ㄱ]이 가지는 의미 [逆讀]이 사실은 字義에 해당하므로 字形에 字義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연결관계가 漢字나 訓讀字에서 볼 수 있는 {/}의 관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指定文字에서 설정하였던 {.·}의 관계인가 하는 것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漢字나 訓讀字에서 볼 수 있는 {/}의 관계는 언어적으로 실질적 관계인 데에 비하여 이 逆讀線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즉 (3)의 漢字 '天'이나 (5)의 訓讀字 '花'의 字形은 실질적 언어 형식인 '하늘'과 '곶'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만 (7)의 字形 [ㄱ]은 실질적 언어 형식이라 할 수 없는 [逆讀]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ㄱ]과 [逆讀]의 관계는 (7가)의 {/} 관계라기보다는 (7나)의 {.·}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을 '언어적 관계 표시'라고 한다면 {.·}은 '기능적 관계 표시'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逆讀線은 (6)의 指定文字와 마찬가지로 기능적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指定文字가 앞에 오는 字를 훈독하라고 [指定]해 주는 기능을 갖는 것처럼 逆讀線도 뒤의 字를 먼저 해독하고 난 다음에 거슬러 올라와서 읽으라는 즉 [逆讀]하라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逆讀線과 같이 符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모두 기능적 관계를 맺는 것들이다. 따라서 모든 符標는 (7나)와 같은 構造 즉 {.·}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點吐는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單點 [·]와 斜線 [\]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8) 點吐의 構造 (假定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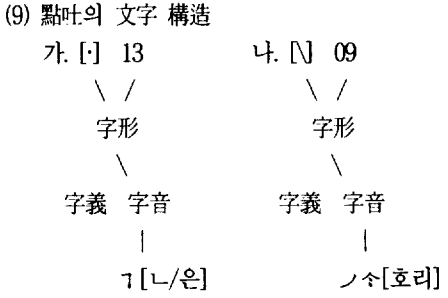
가. [·]	나. [\]
|	|
形	形
義 音	義 音

(8)에서는 字形과 字義를 {/}로 연결하거나 字形과 字音을 {\}로 연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單點 [·]이나 逆斜線 [\]은 그 자체로는 字形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이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 音價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가사지론≫의 경우 單點 [·]13은 'ㄱ[ㄴ/은]'으로 읽히지만 單點 [·]18은 'ᄭ[로]'로 읽힌다. 이 可變性이 點吐의 가장 큰 특징이다.[7]

따라서 點吐의 構造를 (8)과 같은 構造로는 기술할 수가 없다. (8)처럼 點吐의 '種類'만을 고려하고 點吐의 '位置'를 기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구조는 쓸모가 없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點吐의 文字 構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유가사지론≫의 [·]13과 [\]09를 예로 들어 본다.

(9) 點吐의 文字 構造



이 구조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字形의 構成要素로 점토의 '種類'와 점토의 '位置' 두 가지를 인정한다.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點吐의 特性을 반영할 수가 없다. (9)처럼 字形의 構成要素를 점토의 '種類'와 '位置' 두 가지로 보아야만 점토의 文字論的 特性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

---

7) 반면에 符標는 어느 위치에 오든 큰 관계가 없다. 예컨대 逆讀線 [ㄱ]을 13번 위치에서 내려 긋거나 18번 위치에서 내려 긋거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다만 경계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위치가 중요할 때가 있다.

둘째 字形이 字音에는 바로 연결되지만 字義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9가)의 [·]13 즉 'ㄱ[ㄴ/은]'은 主題 補助詞, 動名詞語尾 그리고 末音添記의 세 가지를 표기하는 데에 이용된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를 내세워 [·]13의 본질적 기능으로 삼을 수가 없다. 符號口訣에서는 文法範疇나 機能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同音인 것은 하나의 점토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8] 이것은 點吐의 核心的 機能이 언어 형식의 '表音'에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末音添記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表音的 特性을 대변해 준다. 따라서 (9)에서처럼 字形과 字音을 연결하고 字形과 字義는 연결하지 않는다. 點吐는 表音文字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셋째 字音에는 (9가)처럼 音素나 音節이 오기도 하지만 (9나)처럼 多音節이 오기도 한다. 音素를 표기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末音添記에 속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周本 ≪화엄경≫ 권제22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0) 가. 音素 /ㄱ/의 표기: '唯[·]09 → [오직], 最[·]09 → [안죽]' 등의 [·]09
나. 音素 /ㄴ/의 표기: '一[·]13 → [ᄒᆞ돈], 百[·]13 → [온], 千[·]13 → [즈믄]' 등의 [·]13
다. 音素 /ㄹ/의 표기: '二[·]19 → [두ᄇᆞᆯ], 十[·]19 → [열], 萬[·]19 → [골]' 등의 [·]19
라. 音素 /ㅁ/의 표기: '心[ㅣ]17 → [ᄆᆞ숨]'의 [ㅣ]17
마. 音素 /ㅅ/의 표기: '皆[·]10 → [다ᄆᆞᆺ], 共[·]10 → [다ᄆᆞᆺ], 色[·]10 → [빗], 及[·]10 → [밋]' 등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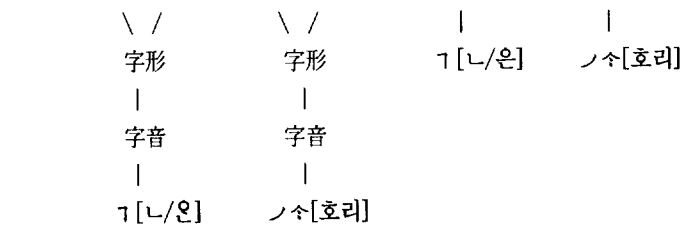
이 예들을 강조하면 點吐는 音素文字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점토는 文法 形態를 표기 대상으로 한다. 문법 형태가 마침 單音節일 때에는 점토가 음

8) 한 예를 더 든다면 ≪유가사지론≫의 [·]07을 들 수 있다. 이는 主格助詞 'ㅣ[이]', 副詞化 接辭 'ㅣ[이]', 末音添記 'ㅣ[이]'의 세 가지를 표기한다. [·]07은 音價가 'ㅣ[이]'라는 점만 분명할 뿐 이 셋 중에서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지 밝힐 수가 없다.

절을 표기 대상으로 하는 音節文字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점토는 둘 이상의 複合 形態를 표기 대상으로 삼을 때도 아주 많다. (9나)의 '[\]09=ㅅᄉ[호리]'가 그 한 예인데 이때에는 점토가 마치 單語文字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點吐를 音素文字, 音節文字, 單語文字의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다. 點吐가 表音文字에 속한다는 점만 분명할 뿐 그 구체적인 類型은 밝히기 어려운 것이다.

點吐가 表音文字에 속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점토의 文字 構造를 (9)처럼 표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11) 點吐의 文字 構造



(9)는 점토가 漢字에 附加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字形과 字音의 관계를 {\}으로 인식한 데에 비하여 (11)은 점토를 일종의 表音文字로 보고 그 관계를 훈민정음처럼 {|}으로 표시한 것이다. ≪유가사지론≫의 [·]18과 [·]24는 각각 口訣字 'ᄆ[로]'와 'ᄆ[며]'로 해독되므로 表音文字임이 분명하다. 이를 강조하여 점토의 構造를 {|}로 표시할 수 있다. 특히 漢字나 漢文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점토만으로 문장을 작성한 예가 발견된다면 (11,가-나)처럼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 구조를 줄여서 (11,가'-나')처럼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ᄆ[로]'와 'ᄆ[며]'가 表音性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口訣字는 末音添記字를 제외하면 대부분 文法 形

態를 표기하므로 表意性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點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점토의 구조를 {\}로 보아야 할지 {|}으로 보아야 할지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3. 訓民正音의 符號字 起源說

3.1. 字形 一致

이제 符號字와 訓民正音의 관계를 논의하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 진본 ≪화엄경≫ 권제20, 주본 ≪화엄경≫ 권제22, ≪법화경≫ 권제1에 나오는 부호의 자형을 종합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李丞宰(2001가)의 분류에 따라 符標와 點吐로 나누어 정리한다.

符標에 속하는 것 중에서 기능이 밝혀진 것만 골라 정리한다.[9]

(12) 가. 漢字의 테두리 □ □
나. 境界線; 單邊 — {上邊, 下邊} ⌒ {上邊} ⌣ {下邊}) {右邊}
二邊 「 {左上} ㄱ {右上} ㄴ {左下} ㅣ {右下}
三邊 ㄩ {上邊 無} ㄇ {下邊 無} ㄷ{右邊 無}
다. 補助線) >
라. 句讀線 — ⌣ ㄱ
마. 合符 | {垂直線}<二字用, 三字用, 四字用, 六字用>
/ {對角 長線}<二字用, 三字用>
바. 逆讀線 ㄱ {下向} ㄴ {下向} ㄴ {上向} / {上向} \ {上向}
사. 校正符號 /{對角 上向} \ {對角 下向} | {垂直 下向}
아. 包形線 O {圓, 타원}

(12가)는 漢字의 테두리를 '□'로 표기한 것이다. '一'字를 '□'로 둘러

9) 이들의 出典은 李丞宰(2001다)를 참고하기 바란다.

싼 모양도 나온다. (12나)의 각종 境界線은 '□'의 안쪽에 온 점토와 바깥쪽에 온 점토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은 선이다. (12다)의 補助線은 점토가 어느 한자에 所屬된 것인지를 밝힐 때에 이용하였다. (12라)의 句讀線은 漢文의 句나 讀에 그은 선을 말한다. 이 중에서 [ㄱ]은[10] 段落線일 가능성도 있다. (12마)의 合符는 앞뒤의 한자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읽으라는 것을 표시한다. (12바)의 逆讀線은 아래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와서 읽으라는 것을 지시한다. 下向 逆讀線은 아래로부터 이곳으로 올라오라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역독의 종착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上向 逆讀線은 이곳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라는 의미이므로 역독의 출발점을 가리킨다. (12사)의 校正符號는 잘못된 점토 표기가 있음을 나타낸다. (12아)의 包形線은 그 기능을 아직 알 수 없다.[11]

다음으로 點吐를 정리하기로 한다. 點吐는 부호구결을 해독할 때 文字化되는 言語 形式을 표기한 것이다.

(13) 가. 單點 ·
나. 雙點 ‥ {水平} ⁚ {垂直} ∴ {斜向} ∴ {逆斜向}
다. 三點 ∴ ∵ ∴ {三角形}
⋯ ⋮ ⋰ {直線形}
라. 四點 ⁞⁞
마. 單線 - | / \
바. 눈썹형 ⊥ ⊦ ⊤ ⊣ ⋋ ⋌ ⁄· ·⁄
사. 느낌표형 ⌐ ⌐ ! ¡ ⸌ ⸍ ⸌ ⸍
아. 망치형 ⌐ ⌐ ⌐ ⌐ |. ⁄ ⁄. ⁄ ⁄ \. \ \
자. '요야'형 ⁚ ⁖ ⁞ ⁄⁚
차. 平行線形 = ‖ // \\
카. 가위형 × 十
타. '∧'형 ∧ ∨ < > ⸜ ⸌ ⊥ ⁊ ⁄⁄

10) 符號字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 ] 안에 넣어 표기한다. 훈민정음의 자형은 ' '로 감싸 符號字와 구별하기로 한다.
11) 여러 부표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李丞宰(2001다)를 참고하기 바란다.

위에 정리된 여러 字形을 訓民正音의 字形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적지 않은 符號口訣의 符號가 외견상 訓民正音의 字形과 一致하는 것이다.

먼저 훈민정음의 初聲字와 字形이 일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4) 가. 훈민정음의 'ㄱ' — 경계선 [ㄱ 또는 句讀線 [ㄱ과 일치한다.
나. 훈민정음의 'ㄴ' — 경계선 [ㄴ과 일치한다.
다. 훈민정음의 'ㄷ' — 경계선 [ㄷ]과 일치한다.
라. 훈민정음의 'ㅁ' — 漢字의 테두리 [□]과 일치한다.
마. 훈민정음의 'ㅅ' — 'ㅅ'형 점토 [ㅅ], 보조선 [>]과 일치한다.
바. 훈민정음의 'ㅇ' — 포형선 [O]과 유사하다.

훈민정음의 '牙·舌·脣·齒·喉'의 基本字인 'ㄱ·ㄴ·ㅁ·ㅅ·ㅇ'이 모두 符號口訣의 字形에서 확인된다. 'ㅋ·ㆁ·ㅌ·ㄹ·ㅂ·ㅍ·ㅈ·ㅊ·ㅿ·ㆆ·ㅎ' 등은 발견되지 않는데 이들은 모두 基本字가 아니다. 이들은 加畫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異體에 속하는 初聲字이다.

(15) 훈민정음의 가획 원리

	基本字		加畫字(1차)		加畫字(2차)	異體字
牙:	ㄱ	→	(ㅋ)			(ㆁ)
舌:	ㄴ	→	ㄷ	→	(ㅌ)	(ㄹ)
脣:	ㅁ	→	(ㅂ)	→	(ㅍ)	
齒:	ㅅ	→	(ㅈ)	→	(ㅊ)	(ㅿ)
喉:	ㅇ	→	(ㆆ)	→	(ㅎ)	

(15)에서 ( )를 한 것은 부호구결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이들은 모두 加畫字나 異體字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은 훈민정음의 基本字가 符號口訣의 字形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否定하는 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훈민정음에서 독자적으로 加畫의 原理를 추가하고 이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異體字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훈민정음의 初聲字들은 대체적으로 (12)에 정리한 부호구결의 符標와 일치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ㅅ'형은 點吐의 일종이므로 예외적이기는 하나 [ㄱ], [ㄴ], [ㄷ], [□], [ㅇ] 등이 모두 符標의 일종인 것이다. 그런데 훈민정음의 'ㅅ'은 'ㅅ'형 點吐 [ㅅ]과 일치하지만 符標의 일종인 補助線 [>]과도 일치한다. 'ㅅ'이 이 둘 중에서 어느 것과 관계가 긴밀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처럼 두 유형에서 자형 일치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훈민정음의 'ㅅ'이 부호 자형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오히려 지지해 준다.

그런데 14세기 자료로 추정되는 祇林寺本 ≪법화경≫ 권제7에는[12] [ㄱ], [ㄴ], [ㅅ] 등이 點吐의 표기에 이용되어 흥미롭다. 南豊鉉(2000가)에 따라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6) 가. [ㄱ]10 – ᄉᆞᄅᆞᄉᆞ[홀씨라], ᄂᆞᄉᆡᄒᆞ[이시니]
[ㄱ]20 – ᄉᆞᄉᆡᄉᆞᄒᆞ[ᄒᆞ더시니]
나. [ㄴ]16 – ᄅᆡᄋᆞᄒᆞ[이어니]
다. [ㅅ]22 – ᄀᆞ[도]
[ㅅ]24 – ᄋᆞ[노/로]

이 예들은 [ㄱ], [ㄴ], [ㅅ] 등이 符標뿐만 아니라 點吐의 표기에도 이용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13]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기록된 시기는 훈민정음의 창제 시기와 100여 년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이들을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에서 본 자형의 일치 현상은 훈민정음의 中聲字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中聲字와 (13)에 정리한 부호구결의 點吐를 대비하여 자형이 일치하

12) 이 자료는 현재로서는 符號口訣의 下限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보다 늦은 시기의 부호구결이 발굴될 수 있으므로 아직은 부호구결의 하한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13) 이 자료에서는 [ㄴ]10도 點吐로 이용되었다.

는 것만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17) 가. 훈민정음의 '·' — 單點 [·]와 일치한다.
나. 훈민정음의 'ㅡ' — 單線 [-]과 일치한다.
다. 훈민정음의 'ㅣ' — 單線 [|]과 일치한다.
마. 훈민정음의 'ᅳᆞ' — 눈썹형 [̣·]와 일치한다.
라. 훈민정음의 'ㅣᆞ' — 눈썹형 [|·]와 일치한다.
사. 훈민정음의 'ᆞᅮ' — 눈썹형 [·̄]와 일치한다.
바. 훈민정음의 'ᆞㅣ' — 눈썹형 [·|]와 일치한다.
아. 훈민정음의 'ᅳᆞᅳᆞ' — '요야'형 [̣· ̣·]와 일치한다.
차. 훈민정음의 'ᆞᅮᆞᅮ' — '요야'형 [·̄·̄]와 일치한다.
자. 훈민정음의 ' :ㅣ' — '요야'형 [:|]와 일치한다.
카. 훈민정음의 'ㆎ' — 느낌표형 [!]과 일치한다.

훈민정음의 中聲字 制字에서 기본이 되는 天地人 三才 즉 '·, ㅡ, ㅣ'는 각각 符號字 '[·], [-], [|]'에 일치한다. 初出字 'ᅳ, ㅣᆞ, ᆞᅮ, ᆞㅣ'는 각각 눈썹형의 '[̣·], [|·], [·̄], [·|]'에 일치하고 再出字 'ᅳᆞᅳᆞ, ᆞᅮᆞᅮ, :ㅣ'는 '요야'형의 '[̣· ̣·], [·̄·̄], [:|]'에 일치한다.[14] 兒童之言이나 邊野之語에서 사용된다고 한 훈민정음의 'ㆎ'도 느낌표형의 [!]에 일치한다. 訓民正音에 대한 旣存의 起源說 중에서 이것만큼 정확하게 字形이 일치하는 예를 제시한 적은 아직 없었다. 따라서 訓民正音의 符號字 起源說을 제기하고자 한다.

훈민정음의 中聲字 '·'는 붓글씨로 쓰기가 아주 어려운 자형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을 線劃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났다. '·'를 창제 당시의 필법처럼 'ㅣᆞ, ᆞㅣ'로 쓰기가 어려워 각각 'ㅏ, ㅓ'로 바꿔 적는 변형이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붓글씨 筆法에 적당하지 않은데도 '·'를 굳이 點으로 制字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훈민정음의 '·'가 符號字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符號字 起源說에 따르면 이 의문이 쉽게 풀린다. 符號口訣의 點은 角筆로 찍는다. 墨筆이나 朱筆로도 點을

14)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훈민정음의 ' :|'에 대응하는 것을 부호구결에서 아직 찾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자료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찍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符號口訣 자료는 대부분 角筆로 찍은 것이다. 각필은 대나무나 상아를 뾰족하게 깎아 종이를 눌러 점을 찍거나 선을 그은 것이다.[15] 대개는 수직 방향으로 종이를 누르게 되는데 이렇게 점을 찍으면 점 모양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와 완전히 같아진다. 이러한 사실도 훈민정음의 부호자 기원설을 방증해 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지적할 수 있다. 中聲字와 일치하는 부호자는 모두 點吐의 범주에 드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전혀 없다. 初聲字는 부호구결의 符標 범주에 드는 것들과 주로 일치하였던 데에 비하여 中聲字는 한결같이 點吐의 범주에 드는 것과 일치한다. 필자가 符號를 符標와 點吐의 두 범주를 나눈 것은 오직 文字化 可能 與否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李丞宰 2001가). 그런데 符標는 주로 初聲字와 일치하고 點吐는 中聲字에 일치함으로써 두 가지가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符號와 훈민정음에서의 字形 一致가 우연이 아님을 암시한다.

3.2. 製作 原理의 一致

字形上의 일치만 가지고 훈민정음의 符號字 起源說을 제기할 수는 없다. 符號字의 製作 原理와 訓民正音의 制字 原理가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符標의 製作 原理는 한 마디로 말하여 일정하지 않다. 부표 [ㄱ], [ㄴ], [ㄷ], [□]은 어느 정도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漢字의 테두리 '□'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體系的 原理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의 [∧]과 포형선 [O]은 한자의 테두리와 그리 긴밀한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전체 부표가 일정한 체계적 질서에 따라 제작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

15) 角筆에 대해서는 小林芳規(1989/96, 2000)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렇다고 하여 符標의 製作 原理를 전혀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훈민정음에서 初聲字의 기본자 'ㄱ, ㄴ, ㅁ, ㅅ, ㅇ' 등을 제자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었던 원리는 '象形'이었고 '象形'의 대상은 '發音器官'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符標의 製作 原理를 '視覺的 辨別性'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대상은 '漢字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표 [ㄱ], [ㄴ], [ㄷ], [□]은 한자의 테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點吐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변별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포형선 [O]은 한자를 둥그렇게 둘러싼 모양이며 보조선 [>]은 부표가 한자에 대해 가지는 소속 관계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 시각적 변별성과 한자에 관련된 것을 강조하여 부표의 제작 원리와 훈민정음 초성자의 제자 원리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처럼 符標와 初聲字의 제작 원리가 동일함을 강조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잘못하면 牽强附會에 빠질 수 있다. '한자에 관련된 것'이나 '시각적 변별성'이 '발음기관'의 '상형'처럼 균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훈민정음의 中聲字와 부호구결의 點吐는 字形뿐만 아니라 製作 原理의 측면에서도 거의 일치한다.

훈민정음에서는 天地人 三才를 象形하여 中聲의 기본자 'ㆍ, ㅡ, ㅣ'를 制字하였다. 이 기본자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點吐의 單點 [·]과 單線 [-], [|], [/], [\]을 들 수 있다. 모든 점토는 點이나 直線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을 서로 合成한 것도 아주 많지만 그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결국은 單點 [·]과 單線 [-], [|], [/], [\]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기본자 'ㆍ, ㅡ, ㅣ'에 符號字의 單點 [·]과 單線 [-], [|], [/], [\]이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토를 基本形 또는 基本 點吐라 부르기로 한다.

훈민정음에서는 기본자 'ㆍ, ㅡ, ㅣ'가 天地人을 象形한 것이라고 明示하여 밝혔지만 符號口訣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본형에 單點과 單線을 이용하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 이를 설명해 주는 明文化된 기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單點 [·]과 單線 [-], [|], [/], [\]이 무엇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인지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필자는 單點 [·]이 '中心, 中央'에서 왔다고 추정한다. 單點 [·]은 漢字의 한 복판에 왔을 때 여러 자료의 音價가 항상 일치한다. [·]13은 ≪유가사지론≫, 진본과 주본 ≪화엄경≫, ≪법화경≫ 등에서 모두 口訣字 'ㄱ[ㄴ/은]'으로 읽힌다.[16] 이에 비하여 다른 위치에 온 單點 [·]은 經典 혹은 宗派에 따라 音價가 서로 달라진다. 예컨대 ≪유가사지론≫에서는 [·]17과 [·]21이 각각 속격조사 'ㅅ[ㅅ]'과 종결어미 'ㅣ[다]'로 읽힌다. 이에 반하여 주본 ≪화엄경≫에서는 이들이 각각 사동접사 '-ㅣ[이]-'와 연결어미 'ᄉᆞ[며]'로 읽힌다. 이와 같이 어느 宗派(혹은 經典)의 점토이냐에 따라 동일한 위치의 單點 [·]일지라도 音價가 달라진다. 그런데도 한 자의 중앙 위치에 온 [·]13은 'ㄱ[ㄴ/은]'으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위치를 單點의 대표 위치로 삼을 수 있고 나아가서 이 대표 위치가 '中心, 中央'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 것이다.

單線 [-], [|], [/], [\]은 '方向'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점토 유형을 잘 검토해 보면 일정한 방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雙點形, 三點形, 눈썹형, 느낌표형, 망치형, 평행선형, 가위형 등이 모두 水平向, 垂直向, 斜向, 逆斜向의 네 방향을 가지고 있다. 방향은 單點으로는 표시할 수가 없으며 가장 분명한 방향 표시 방법은 直線이다. 바로 이 점에서 單線 [-], [|], [/], [\]이 '方向'을 상징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훈민정음의 天地人에 해당하는 것을 符號字에 대해서도 상정할 수가 있다. 부호자의 기본형은 '中心(혹은 中央)'과 '方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에서는 中聲字 'ㅡ, ㅣ, ㅜ, ㅏ'에 대하여 天地人 三才를 서로 合하여 만들었고 이를 初出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初出字의 制字法을 合成法이라 할 수 있다.

(18) 가. ㅡ與ㆍ同而口蹙 其形則ㆍ與一合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16) 南豊鉉(2000가)에 따르면 祇林寺本 ≪法華經≫ 卷第7에서는 [·]23이 'ㄱ[ㄴ/은]'을 표기하므로 예외적이다.

나. ㅣ·與 · 同而口張 其形則ㅣ與 · 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다. ㅜ與一同而口蹙 其形則一與 · 合而成 亦取天地初交之義也.
라. ·ㅣ與一同而口張 其形則 · 與ㅣ合而成 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符號字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單點 [·]과 單線 [-], [ǀ], [/], [\]을 點吐의 基本形으로 삼고[17] 이들을 서로 合成하여 눈썹형이나 느낌표형 등과 같은 初出形을 제작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單點 [·]와 單線 [-]를 합하여 [ᆞ]를 만들고 單線 [ǀ]와 單點 [·]를 합하여 [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基本形을 설정하고 이들을 서로 合成하여 字形을 늘려 나아갔다는 점에서 中聲字 제자 원리와 點吐 제작 원리는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再出字에서도 확인된다. 훈민정음에서는 'ᆢ, ㅣ:, ᅮ:, :ㅣ'에 대하여 '起於ㅣ'라는 점이 'ㅡ, ㅣ·, ㅜ, ·ㅣ'와 다르고 再出한 것이며 再生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19) 가. ᆢ與ㅡ同而起於ㅣ ㅣ: 與ㅣ· 同而起於ㅣ ᅮ與ㅜ同而起於ㅣ :ㅣ與·ㅣ同而起於ㅣ
나. ㅡ ㅣ· ㅜ ·ㅣ始於天地, 爲初出也 ᆢ ㅣ: ᅮ :ㅣ起於ㅣ而兼乎人,爲再出也
다. ㅡ ㅣ· ㅜ ·ㅣ之一其圓者 取其初生之義也 ᆢ ㅣ: ᅮ :ㅣ之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이상 制字解)

이처럼 初出字 'ㅣ·'와 再出字 'ㅣ:'를 구별하였는데 이 차이는 눈썹형 점토 [ㅣ·]와 '요야'형 점토 [ㅣ:]의 차이와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눈썹형 점토를 만든 다음에 다시 '요야'형을 추가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눈썹형 점토는 ≪유가사지론≫, 진본과 주본 ≪화엄경≫, ≪법화경≫의 자료에 공통되지만 '요야'형 점토는 ≪법화경≫

17) 小林芳規 · 西村浩子(2001:52)에서는 雙點을 서로 연결하여 短線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基本形은 單點 [·] 하나로 귀결된다.

에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눈썹형 점토를 먼저 만들어 사용한 다음에 점토 확장의 필요를 느껴 새로 '요야'형 점토를 추가하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요야'형 점토는 再出 혹은 再生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훈민정음의 基本字 설정과 合成法 原理에 맞추어 點吐의 基本形을 설정하고 이어서 合成形인 初出形과 再出形을 차례대로 배열하였다.

(20) 부호구결의 符號字(點吐) 훈민정음의 中聲字

가. 基本形: [·] [-] [|] [/] [\] (單點, 單線) → 基本字: · ㅡ ㅣ (三才)

나. 初出形: [ˍ] [|·] [¯] [·|] (눈썹형) → 初出字: ㅗ ㅏ ㅜ ㅣ

[!] [--] [/] [\.] (느낌표형) → !

[··] [:] [.·] [·.] (雙點)

다. 再出形: [ˍ·] [¯·] [:|] ('요야'형) → 再出字: ㅛ ㅝ : ㅢ

[˙—] [|.] [./] [˙\ ] (망치형)

[∴] [∵] [···] [⋮] (三點)

[::] (四點)

[═] [‖] [//] [\\] (平行線형)

[×] [十] (가위형)

[∧] [∨] [<] [>] ('∧'형)

이와 같이 분류할 수 있었던 것은 延大本 ≪法華經≫ 卷第1의 점토에서 힘을 얻은 바가 크다. ≪법화경≫에는 (20다)의 再出形 점토가 모두 등장한다. ≪유가사지론≫, 진본과 주본 ≪화엄경≫에서는 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20가)의 基本形과 (20나)의 初出形만 사용되었다.[18] '요야'형, 四點, 平行線형, 가위형, '∧'형이라고 명명한 것은 모두 ≪법화경≫에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初出形이 아니라 再出形임을 뜻한다.

18) 三點 중에서 [∴]과 [∵]처럼 세 점을 한군데로 모아 놓은 것은 ≪유가사지론≫과 ≪화엄경≫에서도 사용되었다. 또한 ≪유가사지론≫에는 망치형처럼 보이는 것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이 망치형이 눈썹형과 대립하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제작 원리상으로도 이들은 再出形에 속한다. '요야'형은 雙點과 單線을 합성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四點은 雙點을 反復하여 합성한 것이고, 평행선형은 單線을 反復하여 합성한 것이다. 평행선형이 單線을 나란히 놓아 합성한 것인 데에 비하여 가위형은 單線이 교차하게 하여 만들었으며 'ㅅ'형은 두 單線의 끝이 60° 각도를 이루면서 만나도록 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제작 원리를 감안하여 (20다)에 열거한 여러 유형을 再出形이라 한 것이다.[19]

그런데 훈민정음에서의 初出과 再出에서는 文字論的 字形과 言語學的 音價가 일치하도록 배려하여 制字하였지만 符號字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製作 原理上의 一致를 否定할 수도 있다. 실제로 點吐 [ㅣ·]의 音價는 單線 [ㅣ]와 單點 [·]의 음가를 複合 또는 合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文字論的 字形과 言語學的 音價의 不一致 現象은 訓民正音에서도 容認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ㅣ'와 '·'를 合成하여 初出字 'ㅣ·'를 만들 때 字形이 合成된 것이므로 그 音價도 複合 또는 合成된 것이라야 한다는 論理는 훈민정음에서도 성립되지 않는다. 'ㅣ·'는 文字論的으로 'ㅣ[i]'와 '·[ʌ]'를 合한 것이므로 音韻論的으로 그 音價가 [iʌ] 또는 [yʌ]가 되는 것이 理想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ㅣ·'의 음가가 單母音 [a]이므로 이 기대가 무산된다. 再出字 'ㅣ:'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ㅣ:'는 音韻論的으로 '起於ㅣ'에 해당하므로 음가가 [ia] 또는 [ya]이다. 이 음

19) 그런데 (20다)의 망치형이 문제가 된다. 이들의 구성 요소가 單點과 單線이라는 점에서 망치형은 눈썹형이나 느낌표형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初出形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망치형이 눈썹형이나 느낌표형과 동시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망치형이 유독 연대본 ≪법화경≫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製作 原理의 측면에서도 망치형은 눈썹형이나 느낌표형에 비하여 순서가 뒤진다. 單點과 單線을 합성하는 幾何學的 방법으로는 눈썹형과 느낌표형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 차례에 망치형을 고려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망치형은 視覺的 측면에서 눈썹형이나 느낌표형에 비하여 辨別力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망치형을 再出形에 넣었다.

가에 맞춰 字形을 제작한다면 'ㅐ·'가 되어야 文字論的으로 理想的이다. 그러나 실제 字形은 'ㅣ:'이다. 이처럼 훈민정음의 합성법에서도 文字論的 字形과 言語學的 音價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符號字에서의 字形 合成法에 맞추어 初出形이나 再出形 점토의 音價도 그 複合이 되어야 한다는 論理는 지나치게 理想的인 것으로서 成立되지 않는다.

(20)의 분류표는 많은 것을 암시한다. 첫째 符號字의 字形이 訓民正音의 字形보다 종류가 아주 많다는 점이다. 둘째 그런데도 자형이 기본형, 초출형, 재출형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부호자와 훈민정음의 制作 體系가 일치한다. 셋째 기본형을 반복하거나 합성하여 자형의 수를 늘려 나아가는 製作 原理가 동일하다.[20]

그런데 單位 點吐의 목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基本形을 합성하여 點吐의 종류를 늘려 나아갔다는 논의는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모든 눈썹형 점토가 單點과 單線의 합성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면 눈썹형 점토를 점토 목록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고 나아가서 合成法을 적용하여 눈썹형을 제작하였다는 논의도 무의미해진다. 실제로 일부의 눈썹형 점토는 분석해 보면 單點과 單線의 합성인 것으로 드러난다. ≪유가사지론≫의 눈썹형 점토 [·\]21(혹은 [·\]17)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單點 [·]21과 [\]17이 합성된 것이다(李丞宰 2001나).

그러나 모든 눈썹형 점토를 單點과 單線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본 ≪화엄경≫ 권제22의 [ㅗ]13은 否定素 '不'에 호응하는 것으로서 '多[둘]'에 대응하고 진본 ≪화엄경≫ 권제20의 [ㆍㅅ]15는 謙讓法의 '-白[숩]-'에 대응한다. '多[둘]'과 '-白[숩]-'은 單一 形態이므로 이들의 [ㅗ]와 [ㆍㅅ]를 單點과 單線으로 다시 분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ㅗ]13과 [ㆍㅅ]15는 단위 점토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

20) 부호자에서는 斜線과 逆斜線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훈민정음의 中聲字에서는 垂直線과 水平線만을 이용하였다는 차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네 가지 방향의 직선 중에서 수평선과 수직선만 이용한 것은 시각적 변별력과 관계가 있다.

이처럼 初出形 점토에 분석 가능한 점토가 있는가 하면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일부의 초출형은 단위 점토가 아니고 일부의 초출형은 단위 점토라는 뜻이 된다. 이 兩面性은 한편으로는 基本形을 합성하여 初出形을 제작하였음을 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初出形이 單位 點吐임을 뜻한다.

지금까지 훈민정음의 초성자와 중성자를 나누어 부호자와 비교해 보았다. 이제 이 둘을 종합하여 훈민정음의 부호자 기원설을 제기해 보기로 한다.

文字體系의 異同을 比較할 때에는 個別的 字形 차원의 이동인가 그렇지 않으면 體系的 字體 차원의 이동인가를 구별하여야 한다. 字形은 개별적 한자에 대하여 주로 사용하고 字體는 전면적 체계를 가리킬 때에 주로 사용하므로 '字形'과 '字體'의 개념은 다르다.[21] 예컨대 훈민정음의 'ㅁ'과 'ㅅ'이 漢字의 '口'字와 '齒'字에 기원을 둔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 字形에서의 일치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字形 차원의 일치는 자칫하면 우연한 일치를 체계적 일치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字體 차원의 일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부호자와 훈민정음의 일치를 字形 차원의 일치라고 보지 않고 字體 차원의 일치라고 판단한다. 우선 부호와 훈민정음의 일치 현상이 全面的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의 28字 중에서 최소한 17字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훈민정음 起源說 중에서 字形 일치의 예가 이처럼 많은 학설은 없었다. 또한 이른바 基本字에 해당하는 자형이 모두 발견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초성의 기본자 'ㄱ, ㄴ, ㅁ, ㅅ, ㅇ'뿐만 아니라 중성의 기본자 'ㆍ, ㅡ, ㅣ'에 해당하는 符號字를 모두 찾을 수 있었다. 나아가서 符標와 初聲字의 일치 현상과 點吐와 中聲字의 일치 현상이 구별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制字의 原

21) '王羲之形, 秋史形, 篆書形, 楷書形, 寫經形' 등은 사용하지 않고 '王羲之體, 秋史體, 篆書體, 楷書體, 寫經體' 등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字形'과 '字體'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 준다.

理에 類似性이 많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符號字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훈민정음의 合成法이 부호자에서도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合成 단계도 初出과 再出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모두 符號와 訓民正音의 字形 일치 현상이 個別的인 것이 아니라 體系的인 것임을 뜻한다. 따라서 訓民正音의 符號字 起源說을 제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훈민정음의 合字法에 해당하는 것을 부호자에서도 설정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훈민정음의 合字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둘 이상의 單位音이 모여 初聲(혹은 終聲)이나 中聲을 구성하는 합자법이요[22] 둘째는 初·中·終聲을 서로 합하여 字(또는 音節) 單位로 묶어서 표기하는 것을 규정하는 합자법이다.[23]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前者를 '聲' 단위 합자법, 後者를 '字' 단위 합자법이라 칭하기로 한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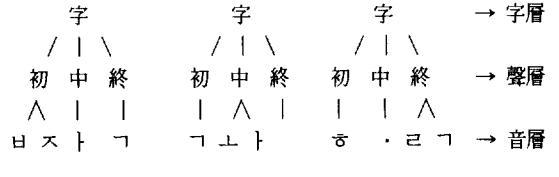
훈민정음의 '聲' 單位 合字에 해당하는 방법은 부호자에서 모두 발견된다. 우선 雙點 [‥]과 평행선형 [‖]은 각각 單點과 單線을 反復한 것이므로 훈민정음의 各自並書 'ㄲ, ㄸ, ㅃ, ㅉ, ㅆ, ㆅ'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구성요소 즉 單點과 單線을 合成한 눈썹형, 느낌표형, 망치형 등은 合用並書, 'ㅱ'과 같은 連書에 해당한다. 합용병서는 橫合이고 連書는 從合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눈썹형 [ㅣ·]과 느낌표형 [ㅣ]의 차이와 같다. 다만 中聲의 合用字 'ㅢㅣ·'나 相合字 'ㅣ:ㅣ'에 해당하는 것은 부호구결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합자법의 불일치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5]

---

22) 여기에는 初·終聲의 並書와 連書, 中聲의 合用과 相合이 포괄된다.

23) 여기에는 中聲의 附書 규정과 終聲을 '初中之下'에 적는다는 것이 포함된다.

24) 필자는 훈민정음에 나오는 '字, 聲, 音'을 다음과 같이 圖示한 적이 있다(李丞宰 1991:187). 이에 따라 '聲' 단위 합자법, '字' 단위 합자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훈민정음의 符號字 起源說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부호구결에서는 '字' 단위의 합자법에 해당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ㅂ, ·, ㄹ, ㄱ'을 '붉'으로 합자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 '字' 단위 합자법에서의 일치까지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훈민정음은 기본적으로는 音素文字이면서 동시에 音節 단위로 모아쓰는 音節文字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合字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부호자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음소문자, 음절문자, 단어문자의 어느 하나로 고정하여 말할 수가 없다. 하나의 點吐가 하나의 文法 形態에 대응하는 예가 가장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어문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에 따르면 부호자에서는 '字' 단위 합자법을 가정할 필요가 없어진다.[26]

4. 結 論

이 글은 符號口訣의 표기에 이용된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를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符號는 기존의 문자와 다른 特性을 가지고 있다. 부호 중에서 符標에 속하는 것은 현대어의 文章符號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들은

25) 훈민정음에서는 水平線 [-]과 垂直線 [|]만을 이용하므로 만들 수 있는 중성자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合用이나 相合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ㅘ'나 'ㅐ' 등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호구결에서는 斜線 [/]과 逆斜線 [\]까지도 이용하므로 부호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편이다. 또한 그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合用이나 相合처럼 복잡한 제작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6) 굳이 이 합자법에 해당하는 것을 부호구결에서 찾아본다면 훈민정음의 音節이 漢字의 테두리 '□' 안에 들어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붉'의 'ㅂ, ·, ㄹ, ㄱ'은 모두 '□'의 안쪽에 자리를 잡는다. 부호구결로 말하면 'ㅂ'은 08번, '·'는 13번, 'ㄹ'은 17번, 'ㄱ'은 19번 위치에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부호구결에서는 點吐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부호구결에서 부호의 위치가 최대 25개로 가정되듯이 훈민정음에서도 변별적 위치가 몇 개인지 논의할 수 있다.

指定文字와 비슷한 文字 構造를 갖는다. 부호 중에서 點吐에 속하는 것은 表音文字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 확실하지만 音素文字, 音節文字, 單語文字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밝혀 말하기 어렵다.

한편 符號字의 字形과 製作 原理는 訓民正音의 그것과 거의 같다. 符標의 자형은 주로 훈민정음의 初聲字에 일치하고 點吐의 자형은 中聲字에 일치한다. 자형 일치의 예가 무려 17개에 달한다. 훈민정음의 중성자는 天地人 三才를 기본으로 하고 이들을 合成하여 初出字와 再出字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제자 원리는 點吐의 제작 원리와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일치는 개별적 '字形' 차원의 일치가 아니라 체계적 '字體' 차원의 일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들어 훈민정음의 符號字 起源說을 제기해 보았다.

대부분의 훈민정음 起源論이 初聲字에 관심을 집중하였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中聲字의 起源을 추적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뜻한다. 宋基中(1991)의 논의처럼 훈민정음의 中聲字와 자형이 유사한 문자를 東西古今의 여러 문자를 통틀어 조사해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中聲字의 起源을 부호구결의 點吐에서 찾게 된 것은 실로 뜻깊은 일이다.

결국 符號字는 特異한 類型의 表音文字에 속한다는 점과 訓民正音의 起源이 된다는 점에서 그 文字論的 意義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 固有의 文字 傳統에서 訓民正音의 起源을 찾았으므로 그 意義가 자못 크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참고 문헌

權悳奎(1923), ≪朝鮮語文經緯≫, 廣文社.

김영욱(2001), 瑜伽師地論 점토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57~77.

金完鎭(1980), 指定文字說의 定立을 위하여, ≪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301~309.

金允經(1954), ≪韓國文字及語學史≫(넷째판), 東國文化社.

南豊鉉(2000가), 高麗本 法華經의 點吐 順讀口訣에 대하여, 口訣學會 제23회 공동연구회 구두발표논문.

南豊鉉(2000나),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5~45.

南豊鉉・李丞宰・尹幸舜(2001), 高麗時代의 點吐 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語學會, 69~102.

서민욱(2001),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167~197.

송기중(1991), 세계의 문자와 한글, ≪언어≫ 16-1, 한국언어학회, 153~180.

尹幸舜(2001), 한국의 부호구결과 일본의 오코토점에 대하여, ≪제25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59~66.

李丞宰(1991), 訓民正音의 言語學的 理解, ≪언어≫ 16-1, 한국언어학회, 181~211.

李丞宰(2000),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135~152.

李丞宰(2001가),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1~32.

李丞宰(2001나),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李珖鎬先生 回甲紀念論叢), 태학사.

李丞宰(2001다), 符號의 字形과 制作 原理, ≪문법과 텍스트≫(高永根先生 停年紀念論叢), 서울대출판부(인쇄중).

鄭在永(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33~56.

小林芳規(1989, 1996), ≪角筆のみちびく世界≫, 東京:中央公論社.

小林芳規(2000), 日本에 있어서의 角筆文獻硏究의 現狀과 課題, ≪口訣硏究≫ 6, 口訣學會, 1~10.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韓國遺存の 角筆文獻 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訓點語學會, 36~68.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E-mail : punklee@unitel.co.kr
접수일자 : 2001. 8. 30.
게재 확정 일자 : 2001. 10. 12.

A Study on Distinctive-Feature System in Korean: focusing on positional features [Kim Gyeong-A]

국어의 변별적 자질체계 연구 - 위치자질을 중심으로 -, [김경아]

By the system of distinctive features we must be able to properly explain the phonological processes. In order to do that we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articulatory but also the acoustic features. Since the acoustic feature [grave] is especially useful in the description of phonological processes in Korean, it could be designated as a distinctive feature. It could be a common distinctive feature applied both for the vowels and for the consonants and could be used to explain the assimilations occurring between a consonant and a vowel. In this paper the features [grave], [labial], [high] and [low] are considered to be *place features* for the consonants and the vowels in Korean, by which several phonological processes are explained.

Remarks on the *Kakp'il Kugyŏl*(pointed-pen *Kugyŏl*), [Lee Sung-Chae]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 [李丞宰]

The *kugyŏl* characters and other symbols marked by a certain pointed object, which have been conveniently called *kakp'il kugyŏl* 角筆口訣 (pointed-pen *kugyŏl*) and which have been found in a number of the 11th~12th century Buddhist scriptures in Written Chinese, are significant in the history of writing systems in Korea. The *kakp'il kugyŏl* are consisted of dots and lines, such as ·, ∶, ㅡ, /, |· and so on, that

indicate particles and other forms or punctuations helpful to the Korean readers understand the texts in Written Chinese.

There are two kinds of symbols in the *kakp'il kugyol*: the one is called *chŏmt'o* 點吐 ("dot-particles"), which includes the symbols for Korean grammatical forms and the other, *pup'yo* 符標 ("tally marks") which includes those representing a certain non-vocal functions such as markings for connection of words, corrections of mistakes, punctuations and so on.

The graphic forms of the *kakp'il kugyol* are strikingly similar to those of the original *han'gŭl* letters found in the *Hunmin chŏng'ŭm* 訓民正音. The *tally marks* ㄱ, ㄴ, ㄷ, ㅁ, ㅅ and ㅇ resemble the symbols for the initial sounds, i.e., consonants, ㄱ, ㄴ, ㄷ, ㅁ, ㅅ and ㅇ, respectively. The *dot-particle* symbols ·,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ㅠ, ㅑ and ㅣ are almost identical with those for the middle sounds, i.e., vowels, of the origianl *han'gŭl*. The *han'gŭl* letters were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basic symbols, ·, ㅡ and ㅣ. The same method seems to have been used for the *kakp'il kugyŏl*. For these reasons, it is considered that the graphic forms of *han'gŭl* were originated from the *kakp'il kugyŏl* symbols of the *Koryŏ* period.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i-*, [Lee Jung Tag]

'-지(디)-'의 통시적 변천에 관한 연구, [이정택]

In the 15th-century Korean records *-ti-* occurs with verbs, both transitive and intransitive, with a semantic function of 'state-change', but it does not occur with adjectives or descriptive verbs. The dependence suggests that *ti* was not an independent auxiliary verb.